

경북도, 인구교육 프로그램 통해 저출생 극복 나선다

북건복지부 등 3개 기관과 맞춘 현재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 공유 결혼·출산 꺼리는 문화 개선 바차

경북도와 보건복지부, 경북교육청, (사)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인구교육'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들 4개 기관은 25일 경북도청에서 '인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종식 경북교육감, 김태연 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의 인구 위기 대응 인구교육 추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사업비는 국비로 지원된다.

이들 기관은 ▲경북 특색형(저출생 극복형)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교 교육과정(인구교육 교과목) 운영 및 확대 ▲경북지역 인구 특



경북도와 보건복지부, 경북교육청, (사)인구와 미래 정책연구원이 25일 경북도청에서 '인구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및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성과 환경 변화를 고려한 전 세대 인구교육 확산 ▲경북 특색형 학교, 지역사회 인구교육 시범모델 수립 등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핵심 교육 과제로 선정하고 유·초·중·고·대학생, 지역주민, 민간 단체 등에 현재의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 공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인식 변화,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문화 개선 등에 나선다.

경북교육청은 인구문제 해결이 단

순한 정책적 접근을 넘어 교육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모델로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인구문제는 미래 세대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과제"라며 "학생들이 인구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경북만의 특색 있는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겠다"

고 말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구교육으로 학령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이 결혼과 양육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으로 경북 특색형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도내 현장을 돌며 대학생, 미혼남녀, 양육 부모, 난임 가족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 경제적 부담 감 정책과 함께 결혼·출산을 환영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육이 어렵게 때부터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며 "경북도가 중앙부처와 손잡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을 지원하고 결혼과 출산이 온전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인구교육 모델을 만들어 전국에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도군 쌀가루 지역자립형 소비모델 구축

진도군이 농촌진흥청의 '2025년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총 9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 모델 구축 사업은 가루 쌀과 가공 쌀 생산단지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차별화된 가공 제품을 개발해 지역 특화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또한, 가공용 쌀 전문 제분 시설, 건조·저장·가공·유통에 필요한 시설, 가공 제품 개발, 상품화와 교육·자문 등의 지원으로 쌀가루의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창원시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서비스

창원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한 교통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카카오와 협업해 경남 최초로 카카오맵 초정밀 버스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카카오 지도상에 창원버스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습과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방법은 카카오맵 첫 화면에서 상단 검색창의 메뉴바를 누르고 '초정밀 버스' 기능을 켜면 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추진

부산시는 겨울철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화재 예방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응계획은 난방용품 등 화기 사용이 늘어나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마련된다.

시와 구·군, 소방재난본부 등 각 기관은 11월 말까지 자체적으로 화재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 오는 12월부터 자체 또는 기관 간 합동으로 시설별 화재 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전남도, 농수산물 수출액 6.4억弗

지난해 연간 수출액 넘어선 규모 김, 3.6억弗 기록 '수출품목 1위' 美 30.2% ↑... 주요 시장 성장세

전남지역 농수산물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농수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7% 늘어난 6억4053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6억3164만 달러)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품목별로 신선농산물은 15.5%, 축임산물 47.7%, 수산물 26.6% 증가하며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신선농산물은 쌀과 배, 파프리카, 배추, 버섯류, 농산 가공품은 유자차와 음료, 김치, 장류, 과자류, 축임산물은 분유와 닭고기, 수산물은 김, 전복, 미역, 톳 등이다.

특히 김은 3억685만 달러를 기록하

며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전복 3719만 달러, 분유 3295만 달러, 유자차 2158만 달러, 미역 1946만 달러 순이다.

시·군별 수출 실적은 목포가 1억 1811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나주(1억 341만 달러), 고흥(9799만 달러), 신안(8866만 달러), 완도(6899만 달러)가 뒤를 이었다.

미국이 지난해보다 30.2%, 일본은 20.7%, 러시아는 18.3%, 중국은 8.7% 각각 증가하며 주요 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신원근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품질 좋은 전남 먹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남의 맛과 품질, 글로벌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지속적인 수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中企 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SME WEEK 中企 지원 프로그램

포항시(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3년 4월 시작으로 5회째 맞이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제조 기술의 경쟁력 향상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 물류 최적화 및 업계 최신 동향을 살필 수 있는 특강 뿐만 아니라, 이들에 걸쳐 ▲스마트 데이터 ▲스마트 공정 ▲스마트 품질 3개 세션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두고 고민하는 기업 혹은 구축은 완료했으나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



포항시(Apple 제조업 R&D 지원센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을 위한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 1:1 컨설팅도 제공되며, 센터 내 장비 투어 등 부대행사도 마련돼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장은 "이번 SME WEEK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애플 등과 긴밀히 협업해 성공적인 상생협력사업의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김해시, 일자리 우수기업 9곳 선정

선정기업, 1년간 166명 신규채용

김해시는 2024년 일자리 우수기업 9개사를 선정했다.

시는 2019년부터 매년 우수한 고용 실적과 근로자 복지 증진에 힘쓴 관내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총 64개사를 선정했다. 주요 평가 지표는 일자리 성장성과 안정성, 기업경영 건전성, 직원복지와 사회공헌 활동 등이다.

인증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 수여 ▲근로환경개선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금리 0.5%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중소기업 지원시

책 우선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8월 공고와 함께 신청기업을 접수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심사위원회의 결을 거쳐 ▲성문 ▲삼성금속 ▲금륜이엔지 ▲엠제이인더스트리 ▲신세기메디텍 ▲행성 전례공장 ▲네오테크 ▲대현상공 ▲제일전자공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최근 1년간 166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 인재 고용과 적극적인 투자로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고 복리증진으로 일자리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섰다. /김해(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전략 모색

내달 5일 관련 심포지엄 개최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개청과 더불어 사천의 발전을 견인할 '사천형 우주항공복합도시' 추진을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5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강당에서 '사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인 사천시만의 특색있는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은 류재영 전 국토연

구원 본부장이 '사천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개발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 발표를 하고, 박태연 광운대학교 교수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한편 사천시는 지난 5월 주거·산업·교육·연구 개발 등 기능이 결합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용현면 일원 5.6㎢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수립 용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천(경남)=손병호 기자